

“가해·피해 이분법 아닌 교실 속 생태계 이해 필수”

2026 학교폭력 예방 소통 라이브

광주동부교육지원청·광주매일신문 주관
‘육아 멘토’ 조선희 아주대 의대 교수 특강
10대 뇌 발달·또래 법칙 등 바탕 해법 제시
“학교·가정 연계 교우관계 회복이 첫걸음”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결과로만 보지 마세요. 10대 아이들의 뇌 발달 특성과 무리에서 튀지 않으려는 교실 속 생태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실 내 갈등을 이해하고 건강한 교우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소통 라이브’가 3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동부교육지원청·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학교폭력 예방 소통 라이브에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합창부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현실 육아 멘토’로 널리 알려진 조선희 아주대학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초청해 특강과 소통 라이브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과 부적응 문제로 현장이 겪는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한 ‘2026 학교폭력 예방 소통 라이브’가 30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대강당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과 최재호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선희 아주대 교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시된 전문가의 해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호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 괴롭힘과 따돌림 등 보이지 않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해 기존의 처벌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교우관계 갈등에 주목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 지역 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건강한 공론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부 강연에 나선 조선희 교수는 ‘아이들의 뇌

발달, 교실의 또래 법칙’을 주제로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실 내 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그 생태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는 결과 예측과 감정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재건축(공사) 중인 시기’라며 “충동적인 아이들에게 어른의 잣대로 훈계하기보다 발달 과정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현법으로 ‘튀지 말고 무리에 속할 것’을 꼽았다. 조 교수는 “아이들 세계에서는 튀지 않는 것이 생존이며,

무리의 결속을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기도 한다”며 “피해 학생은 약해서가 아니라 교실 내 서열과 무리에서 특정 역할을 배정받았기 때문일 때가 많다”고 분석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2부 소통 라이브 ‘슬기로운 교우관계 솔루션’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과거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간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등교 거부와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조 교수는 “담임교사와 소통해 상처가 아물 시간을 주되,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결핍과 지루함을

줘 아이가 스스로 밖으로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실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돌아가면서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 때문에 학급 전체가 물들었다”는 한 초등학교 생활부장 교사의 고충에 대해 조 교수는 “이 시기 아이들의 서열 다툼은 본능적이라 주동자를 직접 훈계하면 오히려 또래 사이에서 위세만 높여줄 수 있다”며 “주동자를 교사 편으로 끌어당겨 통제하거나, 피해 학생에게는 다른 아이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공개적 해법보다는 은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 버릴 힘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권 기자

수능 D-49...현직 교사들 ‘마무리 전략’ 제시

전남광주교육청 이달초 유튜브 공개
영역별 시간 배분 등 실전 대비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영역별 마무리 학습 전략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30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영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영역별로 ▲마무리 학습 전략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 ▲실전 문제풀이 요령 등을 10~20분 안팎으로 담았다.

강의는 다년간 고3 수업과 수능 대비 지도를 맡아온 ▲국어 전남고 전은기 ▲수학 광주여고 심규정 ▲영어 수완고 장동술 ▲사회탐구 전남여고 장정민 ▲과학탐구 광주경신여고 정영희 교사가 맡았다.

국어 영역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독서 지문 핵심 개념과 문학 작품을 충실히 정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무리하게 풀기보다 최신 기출문제와 연계 교재 주요 문항을 다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수학 영역은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다. 함수의 그래프와 조건 해석 등 자주 출제되는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EBS 연계 문항을 활용해 유형별 접근 방법과 시간 배분 전략을 익힐 것을 제안했다.

영어 영역은 문제 난이도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정확히 맞히는 데 초점을 뒀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오답을 분석해 반복되는 실수와 취약 유형을 확인하고, 빈칸 추론·글의 순서·문장 삽입 등 고난도 문항은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할 것

을 강조했다.

사회탐구 영역은 개념과 키워드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제시문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길어진 제시문과 복잡한 도표·자료 분석 문항에 대비해 시간을 정해 문제를 풀고 자주 혼동하는 선지와 오답 유형을 정리해 개념의 빈틈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과학탐구 영역은 응시 인원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2개 과목의 학습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조언했다. 매주 2~3회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실전 연습을 하고 오답을 단권화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6·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과 고난도·수능 연계 변형 문항을 점검할 것을 제시했다.

영상은 10월 초 전남광주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전남광주교육 TV’에서 공개한다. /김재정 기자

남도 식재료로 ‘광주의 맛’ 널리 알린다

내일~11일 광주광역시 ‘미식주간’
음식점·카페 등 71곳 할인행사
워크숍·골목여행·프리미엄 투어

남도의 식재료와 광주의 음식·문화를 연계한 미식축제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2~11일 열흘간 광주광역시에서 ‘2026 광주미식주간 (I-Gourmet-아이고메)’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도의 풍요로운 식재료를 광주만의 음식으로 재해석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와 미식을 연결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2일 오후 6시 동구 오가현에서 ‘개시(開匙): 광주, 첫 손가락을 들다’를 주제로 열

린다.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시연과 전통주 소개에 이어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셰프 박찬일씨, 남파고택 차종부 김선경씨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미식 할인위크’도 운영된다. 불루리본 연계 매장 42곳과 양림스푼위크 참여업소 31곳 등 71개 음식점·카페·제과점이 참여해 지정 메뉴를 10~20% 할인한다. 참여업소와 행사 정보는 광주미식주간 인스타그램(@gwanju_gourmet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도 식재료를 직접 다루는 ‘미식워크숍’과 광주의 골목·역사·문화를 음식과 함께 둘러보는 ‘미식여행’도 마련된다.

외지 관광객을 위한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는 당일 2종과 1박2일 1종 등 3개 상품으로 운영되며, 허영만 작가의 ‘식객: 맛의 뒤편’ 전시 관람도 포함된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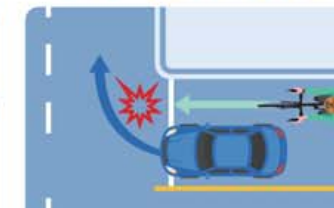
①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① 자전거는 한 줄로!



☑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

② 우회전 차량에 주의!



☑ 서행하며 차량 먼저 보내기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벗어난
사각지대 주의 필요

③ 횡단보도는 두 발로!



☑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②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①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②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CMYK